

東洋의 전통적 環境認識과 環境觀

吳 洪 哲
(동국대학교)

I. 서 론

1992년 6월 5일에는 국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國家宣言을 했을 뿐 아니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수많은 國家頂上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치로 내걸어 지구를 살리자(save the earth)는 운동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國際協約과 실천과제를 조인 협의한 바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가 特定地域과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汎世界的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동시에, 삶의 터전인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only one earth)에 거의 모든 인류가 共感하는데 연유하는 것이다.

막상 문제의 발생 原因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서는 專攻領域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공학분야에서는 技術開發을 통하여, 행정과 법률 분야는 規制와 법칙의 강화로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最少成長의 정책지향으로 각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地理學分野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態度와 가치관에 문제발생의 원인을 찾으려고¹⁾ 노력하고 있다. 지리학은 인간과 自然環境과의 관계를 과제로 삼으면서도²⁾ 현재의 상황(present situation)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도달된 過程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태도는 그 사회의 종교적 價値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西歐社會로부터 시작된 環境危機 또한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교리와 思想體系에 무관하지 않다. 결국 모든 사물은 인간을 위

해 창조된 被造物인 관계로 자연을 착취하고 盜用하는 것도 인간에게 부여된 天賦의 權限으로 확신한데서 비롯된³⁾ 것이다. 사실 기독교에서의 자연과 인간은 모두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고 超越的 創造神을 정점으로 인간과 자연을 垂直的 3계층으로 관계정립하고 있으므로 중간위치의 인간으로 하여금 하부의 자연을 종속시켜 支配權을 행사하는 것은 성서에 근거한⁴⁾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基督敎的 自然觀에 대하여 근본적 수정 없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함은 하나의 試圖에 그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특히 동양의 古代宗教에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⁵⁾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도와 중국문화권으로 양립된 전통적 東洋司會에서 환경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어떤 環境觀을 확립해 왔는가를 종교간의 類似性和 차이점에 역점을 두고 비판적 입장에서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양고유의 環境의 視覺과 지혜를 찾아보려는 데 이 논문의 취지가 있다.

II. 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환경관

1. 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불교에서는 기후환경을 먼저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고대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溫血動物(warm blood animal)로서 속성을 안고 있으므로 適正體溫(37℃) 이상과 이하의 기온조건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습도까지 인간활동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포함한 T. H. I. (Temperature Humidity Index)는 오늘날 쾌적과 不快適을 구분하는 지표가⁶⁾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

1) 黃晚益, 1991, 環境問題와 環境教育, 環境教育, 創刊號, p.18.

2) Earl B.S., 1965, Fundamental of Geography, John Wiley & Sons, p.3.

3) White Lynn Jr.,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y Crisis, Science, Vol. 155, March, pp.1203-1207.

4) 심기득(역), 1992, 환경과 자연인식의 흐름, 고려원, pp.108-109.

5) 姜敬訓, 1986, 西洋의 自然觀과 人間觀, 사상과 정책, 제3권 제2호, pp.52-63.

6) Peter H., 1979, Environment as Ecosystem : Geography :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pp.40-50.

지구상에는 極寒과 極熱의 위험지대가 존재하는 관계로 기후환경에 먼저 관심을 가져 온 것이 그리스 이래의 사조임을⁷⁾ 전제할 때 불교의 環境認識도 이런 범주 속에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 속에서 먼저 인식한 것은 光線과 그로부터 더워지는 열에너지이다. 불경에는 이름하여 天光, 천광의 빛을 日光으로 개념 규정하고 그것은 빛나고 뜨겁다고⁸⁾ 성질을 밝혔다. 이것은 열에너지의 근원이 太陽光線(solar ray)에 있음을 인정하는 현대과학의 사조에⁹⁾ 부합될 뿐 아니라, 일광이 빛나고 뜨거운 이유를 九山에 부딪히고 열을 내는 데 있음을 전제할 때 오늘의 지표로부터 발산하는 輻射熱(reflection from surface)에 해당하는¹⁰⁾ 것이다. 따라서 광선은 눈을 통해서 色彩로서 인식되고 신체를 통한 感觸(感觸)으로 뜨겁고 차가움을 지각하는¹¹⁾ 것이라고 하였다. 지각은 六眼으로 통용되는 신체의 감각부위와 정신으로부터 출발되고, 六境과 六識으로부터 지각의 과정이¹²⁾ 표출된다. 오늘의 환경문제가 고층건물과 매연이 눈을 통한 視覺을, 소음이 귀를 스치면서 聽覺을, 악취가 코를 통한 喉覺을, 불량식품과 오수가 입을 통한 味覺을, 먼지와 자외선이 피부를 통한 觸角을 각각 자극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데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관을 통한 감각적 인식과 이성을 통한 내면적 의식은 환경과 관련하여 배제될 수 없는 상황들이다.

〈표 1〉 불교의 감각부위와 환경인식의 과정

18界	6根	눈 (眼)	귀 (耳)	코 (鼻)	혀 (舌)	몸 (身)	뜻 (意)
	6境	색 (色)	소리 (聲)	향기 (香)	맛 (味)	감촉 (觸)	이치 (法)
	6識	視覺	聽覺	喉覺	味覺	觸覺	意識

註：金慈驥(外), 維摩經講說에서 전제

또한 태양은 6개월을 주기로 南下하거나 북상함을 인식하였으며,¹³⁾ 이는 태양운행에 따라 지표면과 日射角이 다른 현대과학적 내용에 부합된다. 따라서 태양의 북상과

남하의 결과로 나타나는 밤낮의 길고 짧은 시간변화에 대해서도 刹那와 모호콜다에 이르는 時間概念을 정립함과 동시에, 30일을 합쳐 한 달, 12월을 합쳐 한 해가 되는 月曆을 편제하고 있다.

바람에 대해서도 住風, 特風으로 유형구분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다. 다만 바람은 물결을 뒤흔들어 거품을 일으키고, 거품은 공중으로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한다고 기록하고¹⁴⁾ 있다. 이것은 대기가 물로 변하는 과정과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것이므로 물과 공기중의 循環體系(circulation of air and water)를 설명하는 것이며, 강우와 관계있는 上昇氣流를 의미하는¹⁵⁾ 것이다. 또한 비를 내리는 구름에 대해서도 백 혹은 적 주황 등 色彩에 바탕을 두고 가시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폭운은 水大를 가져오고, 주운은 風大를 가져온다고 설명함으로써 오늘의 소낙비 구름, 노을 구름과 같이 천기변화를 예고하는 天氣俚諺을 제시하였다.

강우의 결과로 나타난 流水(runoff)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폭운이 허공으로 올라가 빗방울이 내리면 그것이 지표를 타고 흐르는 과정에서 하천, 호수, 해양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滲透(infiltration)을 고려하지 못한 정밀 관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골격이 되는 유수를 취급함으로써 현대과학의 水循環體系(hydrologic circulation)와¹⁶⁾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유수의 종착지인 해양에 관해서 四海로 표현되는 대양 구분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해수에 염분이 있음을 거론함으로써 淡水와 구분되는 鹽水發生의 요인을 빗물의 지표면 세척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요소의 총화로서 나타난 季節變化를 인식한 데 있다. 계절변화에 따라 기온이 높고 낮으며, 강우량이 많고 적으며, 바람이 세차고 방향이 달라짐은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불경에 기록된 계절변화는 3際로 구분하여¹⁷⁾ 추운 계절의 寒際, 더운 계절의 熱際, 비오는 계절의 雨際를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4계처럼 세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온과 우량의 계절 배분에 관심을 모은 것만은 분명하다.

7) 吳拱哲, 1990, 環境에 관한 認識의 變化, 地域環境, 제8호, pp.53-56.
 8)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제121권, 아비달마구사론, 분별세품, p.42.
 9) Bernard J.N., 1981, Environmental Science, Englewood Cliffs, p.22. .
 10) UNESCO-UNEP, 1986, Environmental Education, Series 8-10, p.22.
 11) 동국역경원, 전계서, p.41.
 12) 金慈驥(外), 1986, 維摩經講說, 寶蓮閣, p.98.
 13) 동국역경원, 1971, 한글대장경, 제1권, 장야합경, 세기품, p.512.
 14) 상계서, p.494.
 15) 오홍석, 1990, 불교의 환경인식과 이용, 교불런는문집 2, p.121.
 16) Arthur N., 1977, Geography and Man's environment, John Wiley & Sons, p.280.
 17) 동국역경원, 전계서(제121권), p.45.

여기에는 계절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3災로서 표현함과 동시에, 火災는 수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함으로써 주민 피해의 정도와 관련된 氣象災害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風災는 대풍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오늘 의 뱅골만에 탁월한 사이클론(cyclone)의 구체적인 인식인 것이다.

기후환경과 관련된 3災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지혜동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衆生救濟를 내세운 불교의 탄생배경이¹⁸⁾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理想世界를 추구도 돕지도 않는 無熱惱池에서 찾으려고 의도한 반면, 기피의 대상인 地獄環境이 엄열, 熱湯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종교가 초월적인 힘(super nature power)과 관련된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더라도¹⁹⁾ 경험은 환경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연구하는 종교와 철학까지 환경의 소산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豚肉을 금기로 삼는 回教戒律도 무더운 사막에서 부패로 인한 食中毒을 줄이기 위한 환경대책의 일환임을²⁰⁾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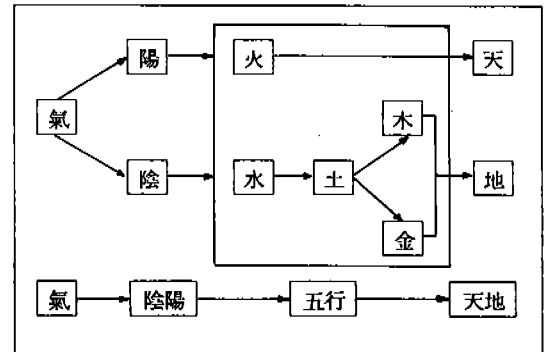
도교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시기가 만물의 시작(未形無名之時則爲萬物之始)이라고²¹⁾ 하였다. 이것은 유형과 유명에 대립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풀무와 같은 조화의 이치가 쫓아다니며 對立과 대치관계를 해소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위적인 造作없이 만물을 산출하고 생육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어떤 사물과 개념에도 적용할 수 없는 形而上學의 존재임을 상기할 때 實質의 환경인식은 불가능 한 것이다.

유교는 하늘과 땅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였다. 인식방법은 위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하는 上下概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하늘과 땅을 內外概念으로 파악하여 하늘은 밖, 땅은 안이다(天成於外 地定於內)라고 하였다.²²⁾ 부부의 관계를 내외로 정립하여 역할분담과 영역에 있어서도 전자를 外部指向의 가 하늘과 양으로, 후자를 內部指向의 인 땅과 음으로 규

정하는 것은 유교적 宇宙觀에 연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도와 距離概念을 도입함으로써 하늘은 높고 끝이 없으며, 높고 멀어지면서 무한한 공간(高窮於無窮……高遊無極)임을 지적²³⁾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하늘은 구름과 연기같은 기로 형성(儒子曰天氣也 氣如雲煙) 되고 있으므로²⁴⁾ 구름과 연기가 없는 상태의 맑고 투명하며 형체가 없는 것이 하늘의 본질(天者純陽 清明無形)이라고 하였다.²⁵⁾ 그런데 기는 두 가지 성질이 있으므로 熱氣를 띤 양이 모여 불이 되고 寒氣를 띤 음이 모여 물을 만든다(積陽之熱氣生火 積陰之寒基爲水)고 하였다.²⁶⁾ 또한 火氣로 이루어진 구체적 사례를 해에서, 수기로 이루어진 구체적 사례를 달에서(火氣之精子爲日 水氣之精子爲月) 각각 찾²⁷⁾ 있으므로 이는 태양이 發光體임을, 달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被光體(月光生於日之所照)임을 인정하는²⁸⁾ 것이다.

〈표 2〉 陰陽과 五行의 분화와 系列性



이에 반하여 땅은 형체가 있으며 물의 농후한 물질이라고 성질을 제시하였다. 물을 땅의 근본(水地之本也)으로 본 것은²⁹⁾ 수분을 함유한 土地狀態에 연유하며 수권과 육권에서 증발(evaporation)이 중요한 水循環體系를 유지하는 사실에 유의하여 물과 흙의 기가 상승하여 하늘을 이루는(水土之氣升而爲天) 것임을 관찰하고³⁰⁾ 있다. 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찌꺼기가 곧 땅이므로 가볍

18) 오홍석, 전계서(교불론논문집2), p.123.

19) Malefijt A. W., 1986, Religious and Culture, McMillan, pp.8-12.

20) 井門富二夫, 1970, 環境と宗教類型展開の關係: 文化地理學, 朝倉書店, p.80,

21) 晉王弼, 唐陸德明釋文

22) 張衡, 靈德

23) 晉書, 天文志(上)

24) 論衡, 談天篇

25) 禮記, 月令疏引

26) 淮南子, 天文訓

27) 上揭書

28) 上揭書

29) 太平御覽

30) 上揭書

고 맑은 것이 하늘이라면 무겁고 탁한 것이 땅(地者氣之查滓也...輕清者爲天 重濁者爲地)이라고 규정하였다.

31) 결국 음의 성질을 띤 물질이 밑바닥에 침전되어 땅이 32) 되었으므로(地底也...陰體下著) 유탕한 것이 흙이고 흙이 기가 작용하여 만물이 생성하게 된(遊濁爲土 土氣和合 而庶類自生) 것이라고 33) 하였다. 여기에 생산과保育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토지에 대하여 地母思想 34) 접목되어 風水說이 등장되었다고 본다.

하늘과 땅은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해와 달이 오른쪽으로 가고 하늘이 왼쪽으로 돈다(日月右行 隨天左轉)고 봄으로써 이른바 左旋右行的 법칙을 전통적으로 신뢰해 왔다. 이것은 天體의 운행법칙일 뿐 천지간의 상호론적 관계가 아니다. 이후 하늘이 오른쪽으로 돌고 땅이 움직인다(天左旋 地右動)는 견해가 추가됨으로써 地動說의 태동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전과 공전을 거론하게 되었다. 그 결과 冬至에는 땅이 북상하고 夏至에는 남하하며, 춘분과 추분에는 중간에 머무르는 4遊를 인정(地有西遊 冬至地上北而西三萬里 春秋二分其中矣) 하기에 37) 이르렀다. 이것은 계절변화에 의해서 日射角(angle of the suns ray)이 달라지고, 일사각의 크기가 지표의 日射量을 결정하는 현대과학적 내용과 38) 흡사하여 公轉에 의한 4季節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음양이며 음양이 아닌 사물은 없다(都是陰陽 無物不是陰陽)라고 하였음을 39) 볼 때 比較概念속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를 파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남녀로 구분된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이 陰陽으로 구분되어 40) 있다(一物上有陰陽 如人之男女 各有道血氣 血陰而氣陽也). 인간을 둘러싼 자연현상도 마찬가지로 정지된 나무와 풀은 陰氣를, 달리고 날으는 짐승과 새는 陽氣를 각각 얻는다(草木都是得陰氣 走飛都是得陽氣)고 유형구분함으로써 41) 동식물의 屬性의 差異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속성이 같다 하더

라도 棲息場所에 따라 육지에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물속에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음이 많은데, 그 이유는 陸上生物이 수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水中生物이 육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데 있다(在陸者 不可入以水入 在水者 不可以居陸 在陸者 陽多而陰少 在水者 陰多而陽少)고 함으로써 42) 地域差를 가져오는 요인까지 제시하였다. 심지어 방위와 계절도 음양의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는데 동쪽의 양과 서쪽의 음, 남쪽의 양과 북쪽의 음은 바로 그것이며(陰陽 有相對而言者 如東陽西陰 南陽北陰也), 봄은 양의 시작이고 여름은 양의 극이며, 가을은 음의 시작이고 겨울은 음의 극이다(春爲陽始 夏爲陽極 秋爲陰始 冬爲陰極)라고 보았던 43)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속성을 관찰한 것에 그치지 않고 類型區分(classification)한 점에서 발전적이다. 음양의 속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動靜의 관점에서는 동이라는 한정을 가진기가 양이고, 정이라는 한정을 가진 기가 음이므로 44) 전자에 走飛의 속성을 지닌 동물이, 후자에 靜的狀態의 초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昇降과 淸濁의 관점에서도 연기처럼 淸經하여 상승하는 것이 양이고, 물처럼 獨重하여 하강하는 것이 음이라고 전제할 때 전자에 陽地의 생물을, 후자에 젖어 있는 음지의 수중생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다.

2. 동양의 환경관

불교는 모든 존재가 절대적 자기실체가 없으며(諸行無常)고 봄으로써 끊임이 변화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45) 있다. 이것은 구름이 이동하고 소낙비가 내리는 순간적인 自然變化 못지 않게,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관심을 모으는 46) 오늘날의 동향에 부합한다. 그 뿐 아니라 이것은 不變의 자연인자와 可變의 인문현상의 상호관계속에 역사인식의 手段으로 환경을 연구하려던

31) 陽道夫, 語類, 卷一

32) 經典釋文, 卷二十九, 兩雅音義(上)

33) 太平御覽, 卷三十七, 地部二

34) 村山智順, 1931,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 pp.5-9.

35) 晉書, 天文志(上)

36) 初學記, 卷五, 地理(上)

37) 博物志, 卷一

38) Arthur N., OP. cit., p.18.

39) 陳淳, 語類, 卷五十六

40) 林學履, 語類, 卷六十五

41) 程端夢, 語類, 卷六十五

42) 上揭書

43) 漁樵問答

44) 김석근(역), 1991,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p.100.

45) 최석호, 1992, 불교의 세계관에서 본 환경문제, 다보, 장간호, p.101.

46) 中內清文, 1973, 環境は變化する: 地理學と環境, 大明堂, pp.9-28.

J. Bodin(1529-1596)보다 어떤 의미에서 앞서가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변화의 논리는 有限性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도 출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까와지는 유한적 存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있을 뿐이다. 결국 생명이 있는 것은 낡아서 머물고, 다시 옮겨 없어지는(生住異滅) 것이며 물질적인 것은 이루어져 머무른 다음 무너져 없어지는(成住壞空) 것이므로 變成의 과정을⁴⁷⁾ 밟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식물의 경우에도 땅고의 열매를 따먹고 씨를 땅에 심으면 땅고나 무가 끝없이 이어지는⁴⁸⁾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段階的으로 幼年期(youth) 壯年期(maturity) 노년기(old age)로 변화과정을 밟는다는 현대의 地形輪廻說(theory of geomorphic cycle)과 다를 바 없다. 돌사이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別個라 하더라도 앞뒤에서 다른 형태로 特續된다는 견해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다만 불교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六途를 돌며 윤회하는 것이지만, 윤회방향에 있어서 앞서 행하는 의지력 행위(思業)와 육체적 행위(身口業)가 내외적 원인이 되어 결과를 낳는다는 業報說을⁴⁹⁾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속에는 不變的 理致가 숨어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인과율로서의 錄起論이다. 직접적인 원(因)인과 간접적인 원인(緣)을 포함하는 因緣은 모이고 흩어지는 이른바 聚散의 원리⁵⁰⁾ 갖고 있다.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이 닿아서 출생되고 식물은 흙과 기상조건이 어울려 자라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보는 견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聯關을 배제한 채 단독의 獨立子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하므로 相互依存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⁵¹⁾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환경을 여러 개의 구성요소가 합쳐진 複合體系(complexity system)로 바라보고 상호간의 關係역시 거미줄처럼 복잡한 고리로서 형성되었으며, 상호간의 파장도 다방면으로 커지는 까닭에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⁵²⁾ 현대의 環境觀에 합치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총체적 조건을 환경이라고 전제할 때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一體不二의 공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환경으로서의 依報와 생명주체로서의 正報가 둘이면서 둘이 아닌 二而不二의 관계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불교의 환경관은 依正不二로 요약할⁵³⁾ 수 있다. 구성요소간의 循環原理(principle of circulation)에서 바라보더라도 인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으며, 음식과 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흡입(inflow)과 배출(outflow)의 상호관계속에 생존을 유지하므로 둘의 관계를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 여기에 더럽고 깨끗함이 분명히 둘이라 하더라도 차례로 서로를 없애는 데서 둘이 아닌 법문이 되는 것(垢淨爲二……順於相滅 是爲不二法門)처럼, 올바름과 삿됨이 둘이더라도 둘로부터 떠남으로써 둘이 아닌 법문으로 들어가는(正邪爲二……離此二者 是爲入不二法門) 이른바, 二而不二의 원리를⁵⁴⁾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도 불교는 바른 법을 배우고 그릇된 행위를 못하도록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戒이므로 계는 곧 천가지 거룩함을 세우는 땅이며 만가지 착함을 발생케 하는 터밭으로 비유하면서 不殺生을 으뜸가는 戒目으로 제시하고⁵⁵⁾ 있다. 이것은 세상의 온갖 존재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귀착되며, 나의 생명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며 萬物一體로 바라보는 慈悲心을 발휘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바꾸어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일이 가장 큰 罪惡으로 규정하였던 까닭에 이는 生命崇敬의 사상을 통해서 현대 環境倫리학의 과제를 최초로 제시한 Schweitzer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삶 자체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므로 윤리적 인간은 생명의 값에 대하여 묻지 않고 나뭇잎 하나도 따지 않으며 하잘 것 없는 곤충도 밟아 죽이지 않는 것을 행동강령으로 삼고⁵⁶⁾ 있기 때문이다.

도교는 반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움직임이 극한 즉 반드시 돌아옴이 있으므로 움직임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反者動之極則必歸也……非動無反)고 하였기 때문이다.⁵⁷⁾ 여기에서 받은 反復을 의미하며 그것은 음

47) 金雲學, 1988, 佛敎의 人生觀, 經書院, p.49.

48) 성진전환회, 1985, 불교성전, 동국역경원, p.302.

49) 金雲學, 前揭書, pp.56-57.

50) 上揭書, p.59.

51) 최석호, 전계서, p.101.

52) 吳洪哲, 1991, 環境敎育, 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 pp.13-15.

53) 池田大作, 1992, 環境문제와 불교, 다보, 제2호, p.114.

54) 金愚聖, 前揭書, pp.279-294.

55) 陸禎碩, 1988, 佛敎의 生活觀, 經書院, p.79.

56) 秦敎訓, 1990, 生態學의 危機의 克服과 環境倫理學의 과제, 環境敎育, 創刊號, p.3.

57) 焦贛, 老子翼, 漢文大系, 卷之三

직업은 돌아옴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도가 만물에 수행함에 가지 않는 곳이 없다(道之周行萬物非不逝也)는 사실을⁵⁸⁾ 통하여 모든 사물이 운동방향을 反復하면서 循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천지간의 이치를 풀무에 비유함으로써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쭈그러들어 없어지지 않고 움직일수록 많은 것을 산출해 내는(虛而不屈動而愈出) 생명의 원리⁵⁹⁾ 표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도교의 환경관은 시작과 끝이라는 一直線上的 시간배열속에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 前進의 생활방식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헤브라이 민족의 환경관과⁶⁰⁾ 다르다. 하나의 현상은 반대되는 현상을 향해 움직이므로 動的인 것이 靜인 것으로, 정적인 것은 다시 동적인 것으로 반복, 순환하는 것이라고⁶¹⁾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다 독립된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으며, 두루 운행되는데 위태롭지 않는(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논리는⁶²⁾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存在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변화 중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固執함으로써 다른 것을 疎外하거나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안게 되므로 이는 불교의 연기설과 백락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진 바람도 한나절을 지나지 못하고 억센비도 하루종일 내리지 않는 것은 현상과 상황이 언제나 그대도 지속할 수 없는 이치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諸行無常의 환경관과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근원적 귀환점은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뿌리는 우주근원에 해당하는 混沌恍惚한 정적상태(復歸其根 歸根曰靜)을 의미하므로⁶³⁾ 천지가 자연에 맡겨야 함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만물이 스스로 相治하는 단계를 말한다. 결국 도교의 자연은 무위와 無造作的 자연을 내세워 인위적 조작의 폐단을 막으려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虛의 극치를 이루고 고유함을 돈독

하게 지키는 데서 만물이 합나 이어짐(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을 바라는 것이⁶⁴⁾ 도교의 자연관이다.

유교는 모든 사물이 대립물을 갖는다고 보는데서 출발하였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天地之間皆有對 有陰則有陽 有善則有惡)고⁶⁵⁾ 하였다. 이것은 사물의 존재를 對立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로 造化되는 길을 찾는 불교의 二而不二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同類相動의 입장보다 친화적 작용에서 탁월하며 무궁무진한 屈伸相感의 입장(氣有陰陽 屈伸相感之無窮)을 유지한 점이⁶⁶⁾ 유교적 특색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기에서 찾고 있으므로 음양도 하나의 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양의 후퇴는 음의 성장(陰陽只是一氣 陽之退 便是陰之生)이라는 屈伸相感의 취지⁶⁷⁾ 연유하는 것이다. 굴신상감은 음양의 수축과 신장, 후퇴와 전진의 循環的交代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물의 존재형태에서 양립되지 않는 이치를 전제한 것이다. 이것은 근원적 물질로서의 기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을 뿐(一氣初無增損也) 아니라,⁶⁸⁾ 모이고 흩어지는(陰聚之陽必散之) 성질⁶⁹⁾ 연유한 것이다.

순환적 교대는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지하는 데서 뿌리를 두고(循環不窮 所謂一動一靜互爲其根)이다.⁷⁰⁾ 움직임이 있으면 感이 있고, 감이 있는 곳에 應이 있으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感應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다(凡在天地間 無非感應之理)고 보는⁷¹⁾ 것이 유교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나오며,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는데⁷²⁾ 이치이다(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여기에서 가는 것은 굽어지는 것이고(屈 또는 消) 오는 것이 퍼치는 것이라면(伸 또는 張) 퍼치는 것과 굽어지는 것이 감응의 결과인 것이다. 특히 봄에 시작하여 여름에 陽極을 이루고 가을에 시작하여 겨울에 陰極을 이

58) 上揭書

59) 老子, 道德經, 第五章

60) 심귀득, 전개서, p.119.

61) 金恒培, 1991, 老子哲學의 研究, 思社研, p.119.

62) 老子, 道德經, 第二十五章

63) 老子, 道德經, 第十六章

64) 上揭書

65) 河南程, 遺書, 第十五

66) 張子

67) 陳淳, 語錄, 卷之十五

68) 黃蘄, 語類, 卷之十八

69) 張子, 正蒙, 參兩篇

70) 錢木之, 語類, 卷七十二

71) 徐萬, 語類, 卷七十二

72) 宋子, 語類, 卷七十二

루는 春爲陽始 夏爲陽極 秋爲陰極)는 것처럼⁷³⁾ 계절변화에 촛점을 맞춘 陰陽論的 循環原理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根底에 단계적 변화로서의 윤회사상이 잠재하고 있다.

III. 결 론

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대지의 변화보다 기후의 변화에 우선하고 있다. 적정수준을 넘어선 極寒과 극열, 건조와 다습이 인간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안겨주고, 기후에 의한 피해가 三災로서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온과 우량 등 기후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계절변화를 公轉과 관련시키고, 낮과 밤의 길이를 자전과 관련시켜 月曆을 편제하고 있다. 이것은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을 節期에 맞추는 농경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性狀과 상호관계는 관찰(observation)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해명함으로써 현대과학의 初步의 방법론에 접근한 사실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얻은 理致를 내면적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智慧의 원리로 삼음으로써 자연환경속의 교육(education in environment)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다 유교사회는 陰陽의 논리로써 단순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사물을 類型區分(classified)함으로써 사변적인 것에 앞서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Roger Bacon의 과학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環境觀은 윤회, 반복, 순환적 원리를 견지함으로써 출발점과 목적지간에 직선적 전진만을 요구하는 서구적 환경관과 대조를 보인다. 즉 불교에서 주장하듯 원

인이 결과를 낳아 앞뒤에서 형태가 다르게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는 輪廻說, 도교에서 주장하듯 서로를 相治하는 無加工의 자연상태에 플무처럼 오고감으로써 태어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없다는 反復說, 유교에서 주장하듯 대립이 조화를 가져와 음의 신장은 양의 쇠퇴를 가져오고, 양의 신장은 음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屈伸相感說은 모두 시작과 끝이 분명한 서구사회의 二分法的논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적 緣起論과 의정불이의 사상은 오늘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자기의 실체를 항상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거나 고립된 별개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자연환경이 완만하게 변화하는 데 속성이 있으므로 환경문제가 인간사회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가해진 무리한 부담이 顯在化 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을뿐 아니라, 환경의 구성요소가 거미줄의 고리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전체로 확대되어 共感의 위기로 발전하는 사실과 관련된다.

依正不二의 사상 역시 들이면서 들로서 바라볼 수 없는 이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 지역과 국가의 문제가 분명 相衝과 대립의 관계를 안고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 偏重되거나 집착할 경우 다른 한쪽에 결정적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둘사이의 균형과 조화는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탈피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둘의 관계는 차별없는 平等關係로, 축출이 없는 同伴關係로, 상충이 없는 相補關係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Traditional Perception and Viewpoint to Natural Environment in the Orient

Hong Seok Oh
(Dong Guk University)

In the orient, ancestor's perception to natural environment was related on the change of climate. Man had been a essence of the warm blood animal, which had suited in mild climate for living and acting. The weather of hot or cold was not only confort in human life but influences negatively on human behavior. The most people of oriental was particularly interrelated to seasonal change of climate in earlier time. Because, there are element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in the category of climate, these elements differentiated seasonal change.

The main methods of perception of natural environment were observed and classified. Although these methods were in the primitive stage, these coincided the tendency of modern science. For exemple, confucian was recognized the law of vertica air current that warm air rised and cold air sinked. And they could classify all elements natu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陰陽論) such as male and female, the sun and moon, shade and light etc. Thus results of the observation and the classification concerned with physical environment can be utilize a wisdom for progressive life of inhabitants. It was a origin of the education in natural environment.

Commonness in the viewpoint of environment in the orient if recognized the law of circulation. Buddhism, originatd in India, realized that all of phenomena in the world was changed slowly through the principles of cycle(輪迴說) such as male and female, the sun and moon, shade and light etc. Thus results of the observation and the classification concerned with physical environment can be utilized a wisdom for progressive life of inhabitants. It was a origin of the education in natural environment.

Commonness in the viewpoint of environment in the orient is recognized the law of circulation. Buddhism, originated in India, realized that all of phenomena in the world was changed slowly through the pinciples of cycle(輪迴說), For exemple, whole of land is shifted from young stage to old stage as the life cycle of humanbeing. The theory of karma effects(業報說) is so signify with the good result that good one's action is reap a sweet fruit. The most environmental problem in today must realized as a consequence of men's act. Then Taoism emphasized the pure nature without the artificiality. Because complexual environment was composed of several elements, It was maintain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cause and effects. The solution of environmetal problem is maintenaced the harmony between cause and effects by a philosophical concept.